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3월5일(금)
--(음력 1월 22일)--
Пятница
5 марта 2021г.
№ 9 (11926)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다.

(이예식 기자 촬영)

친애하는 여성 여러분!

세계 여성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봄의 명절이 특별한 이유는 여러분께서 감흥을 표현하고, 사랑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유쾌한 깜짝 선물을 선사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와 날마다 관심과 돌봄으로 우리를 감싸고, 자신만의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며, 가족과 친지들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사할린주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자신의 전문적 잠재력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며, 자녀교육과 창작, 스포츠, 사회적 사업도 잘 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지역 정부는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책임과 성장기 자녀 간의 문제와 주거 여건 개선, 보건 및 교육의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활의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이 선량하게 시작한 모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여성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사랑과 번영과 강건함을 기원하며, 여러분의 아름다움과 미소로 세상에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사할린주, 여성의 날 기념

지난 4일 오후 4시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 센터에서 3·8절 기념 행사가 펼쳐졌다.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는 여러 분야



에 종사하고 우수하는 여성, 적극적으로 활약하는 여성 리더들이 참가했다. 이들을 축하한 사할린주 알레리 리마렌코 지사는 따뜻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모든 여성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주지사는 이날 교육, 보건, 문화,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성실하게 활동하는 여러분에게 주 정부 감사장을 수여했다. 그중 돌린스크 어린이장애인가속학교의 김 율리아 농아교사가 받았다. 수화를 익힌 그는 이미 장기간 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으며 장애아들을 위한 배려가 많고 실력있는 교사다. 2011년에 그는 사할린주 교사 경연에서 최우수 교사로 선정된 바 있다.

행사는 화려한 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한편 전날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가 준비한 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열렸으며 여성의 날 행사들이 주내 여러 곳에서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취재: 배순신 기자)

사할린, 공중 보건 지도 재개

사할린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역학 상황의 호전으로 공중 보건 지도 시행의 통제가 해제되었다. 의료기관의 모든 자원은 주민들의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는 데 사용된다.

한 해 동안 주민 26만 4천 명의 건강을 진단할 계획이다.

올 초부터 약 2만2천여 명의 사할린 주민이 제한된 검진 방식으로 건강검진을 받았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질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예방 목적으로 의사를 찾는데 이러한 경각심이 생명을 구하게 한다. 건강검진의 절차는 몇 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질병을 발견하도록 하는 검진을 시행하고 분석한다. 환자의 위험 증상이 발견될 시 2차로 추가 검진과 치료에 돌입한다. 건강검진은 주거지 부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매일 접수 중이다. 주민 편의를 위해 매주 수요일 저녁과 토요일 아침부터 1일 건강검진을 위한 시간을 배정한다. 이 시간대를 이용하면 긴 대기시간 없이 모든 전문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단신

사할린 선수 소피야 나디르쉬나, 스노보드 세계 챔피언 되다

슬로베니아의 로글라 스키장에서 열린 알파인 스노보드 종목 세계 선수권 대회가 막을 내렸다. 경기 이틀째 선수들이 평행 회전 경기에 출전한 가운데 여성부 경기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세계적 스포츠 거장 소피야 나디르쉬나(17세)가 금메달을 따냈다. 결승전에서 소피야는 2020-2021 월드컵 우승자인 독일의 라모나 호프마이스터보다 더 빨리 하강했다.

소피야 나디르쉬나는 올림픽 스포츠 종목 학교 스노보드 및 알파인부의 올가와 알렉세이 졸토브 사범의 지도를 받는 선수로서 알파인 스노보드 종목에서 최연소 세계 챔피언이 됐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 홍보실에서 전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건강을 주제로 한 전람회 개최

3월 6일(토) - 7일(일)까지 제 5회 '사할린 의료 정보 엑스포' 사할린주 의료 분야 및 관련 서비스의 성과와 기회에 대한 종합 전시회로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티몰'쇼펜터에 사할린의 의료기관과 이들 과 관련 산업기관들이 모인다.

3월 6일 (토) 12시에는 방문자들을 위한 계몽 및 교육의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 사할린과 쿠릴의 보건' 전무가들의 회의가 개최되고 의료진들의 상담자리가 마련된다.

3월 7일(일)에는 어머니와 자녀, 아름다움과 건강의 날로 전시회가 펼쳐지는 가운데 행사 콘서트와 건강 검진, 교육적 행사 등으로 방문자들에게 유익함을 안겨줄 예정이다.

러시아 장애인 알파인 스키 선수권 대회 사할린에서 개최

3월 2일 러시아 장애인 알파인 스키 선수권 대회가 유즈노사할린스크 고르니워즈두흐 스포츠 관광단지에서 처음 열린 가운데 전국 8개 지역에서 15명의 선수들이 경기에 참가했다. 3일간 알파인 스키 선수들은 '스포르치브나야'와 '자빠드' 트랙에서 수퍼대회전, 수퍼복합 회전, 회전, 대회전 등4개 종목에서 경기를 치렀다.

<안나 보갈리킵> 바이애슬론 대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

3월 2일(화) - 9일(화), '안나 보갈리킵-스키미르' 바이애슬론 종목 경기가 유즈노사할린스크 트리움프 바이애슬론 스키단지에서 열리고 있다.

전국 13개 지역에서 160명의 젊은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메달을 놓고 경쟁하기 위해 사할린에 왔다. 경기 1차전은 2월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렸고, 사할린에서 2차전 경기 후 청소년 바이애슬론 선수들은 노위시비르스크에서 열린 결승전에 출전한다.

새고려신문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85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김쏘냐'가 된 '이선영' 실무관의 7년 간의 сахалин 사랑

«сахалин은 저에게 외갓집 같은 곳입니다»



2021년 2월 27일, сахалин 영 사 출장소에서 동포, 영사·민원, 사건·사고 업무를 담당했던 이선영 실무관이 만 7년 간의 сахалин 생활을 마무리하고 모국으로 돌아갔다.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сахалин에 남아있다는 그녀의 сахалин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сахалин에 오신 지 벌써 7년이나 되었네요. 어떻게 сахалин에 오게 되셨나요?

대학원 수료 후 러시아로의 유학과 취업 사이에서 진로를 고민하던 중, 현지 경험을 쌓고 싶어 러시아·CIS 국가 내 대한민국 재외공관 몇 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중 сахалин 출장소는 처음으로 지원했던 공관인데, 두 번의 지원 끝에 합격하여 2014년 2월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 сахалин에 오시기 전 сахалин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나요?

제가 학창시절을 보낸 도시가 경기도 안산이라, сахалин 한인에 대해서는 어렵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고향마을에서 생필품과 우편물 등을 집집마다 나누어 드리는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상하다. 이 마을에는 노인들만 사시네.'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때 어르신들이 학생이 왔다고 반가워 해주시며, 들어와서 놀다가라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재외동포재단에서 다년간 여러 봉사활동을 하면서 고려인이나 сахалин 한인은 종종

접해왔습니다. 그중 유독 특별한 기억은 2013년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сахалин 한인 문제에 대해 눈물어린 호소를 하시는 한 어르신을 만난 일입니다. 그때 그 연설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분의 명함도 받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현재 сахалин주 한인 여성회의 김웨철 회장님이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당시 한인회장님이었던 이명군(러시아어 표기 임용군) 회장님 대신 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하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сахалин의 아픔을 접한 후, 이듬해 сахалин에서 오게 되었으니 저와 сахалин은 어쩌면 처음부터 인연이 있었나 봅니다.

- сахалин에서 근무하시기 전, 러시아 다른 도시에 체류나 방문해 본 경험이 있나요?

학부 전공이 러시아학이어서 페트로자보츠크(카렐리아의 수도)에서 10개월 간 여학연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러시아 주요 도시를 여행했고, 전 직장인 법무법인에서 연수로 극동지역(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캄차트카)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 сахалин이 다른 러시아 도시들과 구분되는 특징이 있던가요?

сахалин에 처음 왔을 때, '왜 공화국이나 자치주 같은 연방 주체의 지위를 갖지 못했을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한국적이라고 느꼈어요. 거의 모든 가게에서 김치를 비롯한 한국 식품, 제품 등을 팔고, 식당의 메

뉴들은 러시아어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키릴문자지만 한국어 발음 그대로 쓰여져있더라고요. 하다못해 한 쇼핑물의 공중화장실 휴지도 한국산인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섬 전체 인구의 5% 밖에 되지 않는 한인 인구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덕분에 지난 7년 간 항수병 없이 잘 지낸 듯 합니다.

- сахалин 내에서도 여러 지방을 방문한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곳이 있나요?

제가 가 본 모든 지방은 모두 나름의 아름다움과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모두 인상깊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히려 17개 지방 한인회가 있는 곳 중, 4개 지역(고르노자위드스크, 위스토크, 사흐초르스크, 체호브)에 가보지 못해 아쉬움이 남네요. 나중에 다시 오면 못 가본 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 코르사코브에서는 주말마다 한국어 수업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래 하셨나요?

2016년 9월부터 매주까지는 아니고, 시간이 되는 일요일마다 한인회 사무실에서 박창순 부회장의 한국어 수업을 조금 도와주었습니다. 2020년 초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가지 못했으니 3년 정도 간 셈이네요. 가르치는 일이 가장 좋은 공부라더니, 원어민이지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특히 교수법에 대해서는 아는 게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온 라인으로 '한국어 교원양성과정'도

수료했습니다. 덕분에 코르사코브분들과는 각별한 정도 들고, 저 개인에게도 정말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 석사 학위도 сахалин 한인들 주제로 한 논문으로 마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석사과정을 수료한 상태로 сахалин에 와서, 현지에 있는 동안 그 이점을 살려 сахалин 한인에 관한 내용으로 논문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주제는 'сахалин 한인의 법적 귀환에 관한 고찰'이고, 주요 내용은 특별법이 오랫동안 표류해 온 원인을 찾고, 정책모형을 통해 귀환 정책의 한계 및 대안을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목과 내용만 거창할 뿐 사실 저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수준의 글이라, 전랑 회수·폐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덕분에 сахалин 동포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할 기회가 되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7년 간 근무하면서 업무적으로 가장 기쁘거나 성취감 있던 일은 무엇인가요? 또 반대로 가장 좌절했던 일이 있다면요?

가장 기뻐던 순간은 2020년 4월 29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сахалин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동포들께는 아쉬움이 많은 대안으로 통과되었지만, 그래도 сахалин 한인사에서 진일보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새벽까지 생방송으로 지켜봤는데, 그토록 가슴 벅차고 기쁜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취감과 좌절감

을 느낀 일은 역설적이게도 동시에 일어났는데, 김윤덕 어르신(1923년 경북 경산 출생)이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는 호적을 정정해드린 일이었습니다. 영사관의 공식업무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연이 닿아 지구촌동포연대(KIN)의 소개로 조영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시작한 일이 1년여 만에 결실을 보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할아버지는 결과가 나오기 2달 전에 돌아가셔서 이 소식을 하늘 나라에서 들으셨어요. 묘소에 찾아가 울면서 결정문을 읽어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 김윤덕 어르신과는 어떻게 각별한 인연이 되었나요?

- 할아버지는 сахалин에 남아계신 실제 강제징용 1세 두 분 중 한 분으로 워낙 유명해서서 업무적으로 한두 번 뵈거나 통화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 초청 오찬에 제가 동포 대표분들을 모시고 가게 되면서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그 후로 두어 달에 한 번씩 시네고르스크에 할아버지를 뵈러 갔어요.

(3면에 계속)

이 모 저 모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의 가가린 공원에서 눈 조각 경연

지난 2월 27일(토) 유리 가가린 문화·휴식 공원에서 '눈의 환상' 눈 조각대회가 열린 가운데 멋진 눈 조각 경연에 10개 팀이 참가했다.

거대한 눈더미가 있는 웨르흐네예 호숫가에는 몇 시간 만에 다양한 모양들의 세계가 펼쳐졌다. 동화 속 거대한 순무, 체서 고양이, 펭귄, 거북이, 용, 썰매 개, 특히 소원의 우물에 많은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행복을 빌며 동전을 던져 넣기도 했다.

주최 측은 행사 참가자들과 팬들을 위해 사탕과 따뜻한 차를 나누어 주었고, 경쾌한 음악이 연주되면서 눈 조각 경연의 관람객들에게 흥을 돋우어 주었다.

작품 심사는 쉽지 않았다. 많은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을 평가해야 했는데 그중 상위 3위까지 우승팀을 선정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1위는 '거북이'팀이 차지한 가운데 경연에서 압도적인 우승을 거두었다. 2위는 '이스코르카'팀과 '시네고르스크'팀이 차지, 3위는 '하빌스'팀이 차지했다.

모든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작품에 독창성을 담고자 했다. 이에 주최 측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참가상을 수여했다고 공원 측이 밝혔다.

В пар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вели конкурс снежных фигур

27 феврал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Юрия Гагарина состоялся конкурс снежных фигур "Фантазия снега". Десять команд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состязании на лучшую скульптуру.

На озере Верхнем из огромных куч снега за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появился целый мир из различных фи-

гур. Репка, Чеширский кот, пингвин, черепаха, дракон, упряжка с собаками и даже колодец желаний, в который с большим интересом горожане бросали монетки на счастье.

Для болельщиков и участников на площадке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раздача горячего чая с конфетами. А веселое музыкальное сопровождение придавало задор гостям снежного конкурса.

Работа жюри была непростой — много творческих и креативных работ предстояло оценить, но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выбрать только трех победителей.

Сомнений не возникло в борьбе за первое место — команда "Черепашки" стали бесспорным лидером конкурса.

Второе место разделили команды "Искорки" и "Синегорские медведи".

Третье место — команда "Хотвилл".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старались быть оригинальными в своих работах, поэтому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градили всех конкурсантов, сообщает парк.

сахалин에 관한 동영상 국제 전시회에 참가

сахалин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주제로 한 동영상이 권위있는 국제 관광박람회의 경연에 참가한다. 2.5분의 동영상 작품은 сахалин의 가장 추억에 남을 명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배를 타고 다가가갈 수 있는 아니와 등대, 밝은 초록빛 숲이 우거진 좁고 구불구불한 언덕길, 노위코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비취빛 호수 등이다. 영상 제작자들은 드론으로 새가 비행하는 높이에서 촬영하여 전달할 수 없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었다. 작가의 작품을 평가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국제 관광박람회(MITT) 홈페이지에서 <сахалин은 나의 섬> 동영상에 투표할 수 있다. 지지를 위해 등록은 필요치 않으며 홈페이지로 들어가 동영상에 게시된 데서 '좋아요.'를 누르면 된다.

'러시아 지역의 우수 동영상' 경연은 이번에 모스크바에

서 이미 26년째 개최하는, 국내와 인근 해외의 가장 규모가 큰 국제 관광박람회의 일환이다. 해마다 이 전시회에 전 세계 관광산업 대표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행사의 일환으로 주최 측은 러시아 연방 행정자치체들의 기억할 만한 명소를 담은 우수 영상을 선정한다. 국내 각 지역으로부터 동영상들이 출품되면 박람회 홈페이지의 방문자들이 우수작을 선정하게 된다. 투표는 3월 15일까지 계속되며 경연의 우승자에게는 주최 측이 상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3월 17일 모스크바 '크로쿠스 엑스포'에서 열릴 예정이다.

Ролик про Сахалин участвует 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е

Видеоролик, посвященный уникальным красота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частвует в престижном конкурс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туристической выставки.

В авторской съемке за 2,5 минуты показывают самые запоминающиеся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Сахалина. Это и маяк Анива, к которому можно доплыть на лодке, и изрезанные узкими дорогами сопки с ярко-зеленым лесом, и бирюзовые озера недалеко от Новиково. Создатели ролика сумели показать непередаваемые краски природы с высоты птичьего полета.

Желающие оценить работу авторов могут проголосовать за видео «Сахалин — мой остров» на сайт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и MITT. Регистрация для поддержки не нужна: достаточно зайти на страницу, где опубликован ролик, и нажать кнопку.

Конкурс «Лучший видеоролик региона России» — часть самой крупной в стране и ближнем зарубежье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ой турвыставки MITT,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т в Москве уже 26 лет. Ежегодно на нее съезжаются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бизнеса со всего мира.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организаторы выберут лучшие записи, на которых запечатлены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субъектов РФ. Авторские видео присылают со всех уголков страны, а лучшие работы выбирают посетители сайта выставки.

(8면에 계속)

올해 자녀들과의 영주귀국이 사할린동포1세 90여 명의 희망

사할린주 한인협회, 2021년 영주귀국사업에 대해 설명

요즘 사할린 한인들 가운데 가장 뜨거운 주제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특히 영주귀국 및 정착사업이다. 이와 관련한 설명회로 지난 27일(토) 사할린 한인문화센터 강당을 찾아 온 동포들로 가득했다. 좌석이 모자라 서있는 사람도 많았다. 350여 명이 넘게 모인 동포들의 연령대는 50-60대였다.

주요 발표는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했다. 그는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 역사부터 시작하여 그 동안 사할린 한인들의 의견과 입장을 고려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사할린 동포들의 입장을 대한민국 총리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전해줄 수 있었다고 박 회장이 강조하기도 했다.

사실 특별법 내용이 동포들이 기대한 것과 좀 달라 아쉬움이 많았다고 표명한 박순옥 회장은 이에 대해 사할린 한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 2003년부터 협력사업을 해온 지구촌동포연대(KIN) 배덕호 공동대표와 최상구 사무국장과의 얘기를 나누었다.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법에는 수정을 가할 수 있고, 법이 통과된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2021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 설명에 들어가서는 박 회장은 특히 국적 문제와 지원, 유권자 자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박 회장은 복수국적과 이중국적 차이점을 설명하고 주한인협회측에서는 모든 사할린동포들을 위한 이중국적 취득 권리 대한 양국(러시아와 대한민국)간 협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동반가족으로 직계 비속 1인과 그의 배우자가 한국으로 영주귀국 하는 데 대해 사할린동포 1세 92명이 희망을 표명했다고 박순옥 회장이 전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측에서는 이들에게 영주귀국 신청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신청서는 한국어로 적어야 하고, 증명서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며 한국어로 번역이 필요하다고 박 회장이 매년 강조했다.

회의를 찾아온 동포들은 수많은 질문을 하고 반복한 질문도 많았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김쏘냐'가 된 '이선영' 실무관의 7년간 사할린 사랑

«사할린은 저에게 외갓집 같은 곳입니다»

(2면의 계속)

할아버지는 저를 친손녀처럼 애써해주셨고, 저도 할아버지 덕분에 사할린에 더욱 정이 들고 동포업무에 제 일처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러시아어 이름인 '쏘냐'에 할아버지의 성을 붙여 '김쏘냐'라는 저의 새로운 정체성도 얻게 되었죠.

- 주 업무 외에도 주립미술관, 향토박물관 한국어 음성가이드 녹음 등 여러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최근 사할린 연구가 니콜라이 비시넵스키의 사할린 한인에 관한 책은 어떻게 번역하게 되셨나요?

- 사실 저는 전문 번역가도 아니고, 성우도 아니어서 이런 일들이 부담스러운데, 모든 일에는 의미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어지는 일은 최대한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격입니다. 주립미술관 건은 새고려신문사 사장님의 부탁으로 소정의 번역료만 받고 녹음했고, 향토박물관 건은 저희 출장소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오히려 저에게 영광이지요.

마카로브 한인에 대한 책은

마카로브 한인회장님의 부탁으로 하게 되었는데, 제 능력 부족을 이유로 처음엔 몇 차례 거절했지만 결국은 마땅히 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대신 기간을 여유있게 달라는 것과 번역료는 받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승낙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재택근무하는 날이 많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시고도 아직 아쉬움이 많아 보이는데,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사할린에서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더 있습니까?

- 사실 아직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제가 생각하는 미결 과제들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그것들은 이제 이선영 실무관이 아닌, 쏘냐로 차근차근 해나가려 합니다. 성취해낸 후에 독자분들께도 소식 전할게요.)

- 이선영 씨에게 사할린은 어떤 의미고, 사할린에게 이선영 씨는 어떤 의미였으면 합니까?

- 무언가를 한 단어로 정의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지만, 굳이 비유해 보자면 사할린은 저에게 외갓집 같은 곳입니다. 그

리고 사할린에게도 제가 손녀딸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 개인적인 이유로 갑작스레 조용히 사할린을 떠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큼니다. 코로나 상황만 아니어도 모두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따로 인사드리지 못한 동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동포들을 돕는 일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당장은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취득하면 인천이나 안산에서 영주귀국하신 사할린 동포들의 행정업무 돕는 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원자격증도 취득하여 국내 거주 재외동포들의 한국어 학습과 정착에도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 그동안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세계 여성의 날을 축하하고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모든 소원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배순신 기자)

제102주년 3·1절 기념식 탑골공원서 개최

코로나19 상황 감안해 대통령 내외, 독립유공자 후손 등 50여명만 참석 문 대통령 "3·1 독립운동으로 우리는 식민지 극복의 동력을 찾았고, 민족의 도약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이 3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세계만방에 고하야(世界萬邦에 告하야)'라는 주제로 열린 기념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및 정부 주요 인사 등 5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헌정 공연 ▲독립유공자 포상 ▲대통령 기념사 ▲기념공연 ▲삼일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사회는 아나운서 장예원 씨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이재화씨가 맡아 의의를 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자유와 독립의 외침은 평범한 백성들을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했고, 정의와 평화, 인도주의를 향한 외침은 식민지 백성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합성이 되었다"며 "3·1독립운동으로 우리는 식민지 극복의 동력을 찾았고, 민족의 도약을 시작할 수 있었다. 역경을 헤쳐 나가며 대한민국 역사의 반전을 이룬 자랑스러운 선조들께 깊은 존경을 바친다"는 말로 기념사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언제나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며 "과거에 발목잡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넘어야 할 유일한 장애물은, 때때로 과거의 문제를 미래의 문제와 분리하지 못하고 뒤섞음으로써, 미래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고 일본과의 언제나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1독립선언서는 일본에게 용감하고 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면서 "우리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역사사지의 자제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국민의례 순서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현재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맹활약 중인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 씨가 영상으로 낭송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이름을 널리 알리며 국위 선양 중인 스포츠 선수 약 170여 명이 함께 부르는 애국가 제창 영상이 상영됐다.

'독립선언서 낭독'은 김원웅 광복회장을 비롯해 일제강점기 당시 세계 곳곳에서 독립을 위해 힘썼던 내·외국 독립운동가 후손과 함께 수어 통역사, 다문화 대표 연예인 등 7인이 기념식 현장에 직접 읽거나 영상으로 함께했다.

독립선언서는 한국어(쉽고 빠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우리말 수어 등 순차적으로 낭독했다.

이어 헌정 공연에서는 세계적인 첼리스트 홍진호 씨가 '아리랑'과 아일랜드 민요 '대니 보이'를 엮어 연주했다.

올해 3·1절에는 총 275명의 독립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이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독립유공자 일곱 분께 건국훈장 및 대통령 표창을 수여 했다.

기념사에 이은 기념공연에는 가수 정인 씨와 매드클라운, 헤리티지 합창단이 '대단이 살았다 2020'을 기념공연으로 선보인 뒤 전체 참석자와 함께 3·1절 노래를 제창했다.

이날 마지막 순서로 예비 의료인들의 선창에 맞춘 '만세삼창'으로 올해 3·1절 기념식은 마무리됐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금년 10월 경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창립을 추진한다

3.2(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초청한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장단 간담회에서 밝혀.....



한국시간 3.2(화), 전 세계 대륙별 총연합회 회장단이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초청한 간담회에서, (가칭)사단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약칭:세계총연) 추진

위원회를 결성하기로 하였으며,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창립 발표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2021 세계한인회장대회 대륙별 회장단 일동' 명의로 추진하고 있는 '재외국민 참정권 실질적 보장 촉구 청원'이 금년 중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장단은 내부 사정으로 대륙별 총연합회 모임에 참석치 못하고 있는 미주 및 일본지역에서도 조속히 연합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재단측의 노력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간담회는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인 심상만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장과 주점식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장이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백승국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장, 노성준 러시아·CIS 한인회총연합회장, 김집배 아프리카·중동 한인회 총연합회장, 유재현 유럽한인총연합회장, 하정수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장, 김교식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하였고,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김성곤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재외동포재단은 금년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언택트 상황을 고려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각 대륙별 한인회 대상 "찾아가는 동포재단" 화상 모임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Более 9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1-го поколения хотят выехать на ПМЖ с детьми в этом году РООСК провела встречу с населением по проекту переселения на ПМЖ

Самая главная и самая обсуждаемая тема сред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егодня – это, конечно же, тема репатри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рамках Спец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й вступил в силу 1 января 2021 г.

16 февраля состоялась разъяснительная онлайн-встреча,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министерств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 лидерам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 ней был подробно изложен Проект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и обустройстве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опубликован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в газете «Сэ коре синмун» за 26 февраля 2021 г.).

Чтобы донести до широких масс содержание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27 феврал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ККЦ) организовала встречу с населением. Зал не мог вместить всех желающих, многие слушали стоя. Их было однозначно свыше 350 чел. Средний возраст большинства – 50-60 лет.

Открывая встречу,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Ок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подчеркнула, что не напоминает такого интереса к собранию в стенах этого центра.

Свое выступление она начала с истории принятия Спец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ый был принят депутатам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К в конце апреля 2020 г. Проект спецзакона, который был принят, по существу не особо обрадовал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ч. и саму Пак Сун Ок. Однако руководители южнокоре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ИН, с которой РООСК сотрудничает с 2003 г., немного успокоили сахалинцев, сказав: «Самое главное, закон, который пытались пробить более 14 лет, наконец-то принят. И внести поправки в Закон гораздо легче, нежели принять его».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сообщила о том, какая работа велась организацией по отстаиванию интерес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рамках претворения в жизнь 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РООСК принимала участие в обсуждении содержания нормативных актов по исполнению вышеуказанного Закона. Пак Сун Ок участвовала в онлайн-встрече с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ом РК. И хотя встреча была посвящена теме коронавируса, она смогла донести до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позиции РООСК по Спецзаконоу.

Пак Сун Ок сообщила, что в результате мониторинга, проведенного в апре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ществом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К среди сахалинцев-репатриантов, желающих выехать на ПМЖ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2-го поколения, составило 2100 чел.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в цифры анкетирования 2-го поколения, РООСК тогда подало цифру 2500 чел. В их число вошли и те, чьи родители уже умерли, так и не сумев возвратиться на Родину.

В этом году программой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могут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350 чел. По словам Пак Сун О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 желании переехать вместе с детьми в рамках нового Закона, высказалось 92 представителя 1-го поколения. Если с ними вместе поедут их дети, то эту цифру можно умножить на три. У них приоритетное право. И уж после этого буду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заявления тех, кто желает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родителям, уже выехавшим на ПМЖ. Приоритетность будет определяться согласно возрасту родителей.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буду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сахалинцев, уехавших в Ансан и Инчхон.

Пройдясь по Проекту поддержки в переселении на ПМЖ,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одробно остановилась на вопросе получения гражданства, объяснила разницу между вторым гражданством и двойным гражданством.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получатели поддержки согласно Проекта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второе гражданство. РООСК хочет добиться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ава двойн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на уровне соглашения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ами России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ного вопросов вызвала тема подачи документов и Заявления на ПМЖ. Пак Сун Ок заявила, что РООСК окажет помощь лишь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1-го поколения в заполнении Заявления и подаче документов.

Напомним, Заявление подаетс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 документах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ождени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браке и т.д.) должен быть проставлен апостиль. Документы должны быть переведены н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также должна содержаться информация о переводческой компании и переводчике.

В этот день прозвучало много общих и частных вопросов, 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рассматривались по третьему кругу. Ясно одно, тема переезда на ПМЖ в рамках Спец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станется одной из главной на весь этот год.

Проект репатриации в рамках Спецзакона продолжится и в следующие годы.

Виктория БЯ

Накануне женского праздника 8 марта Виктория Цой, ставшая лауреатом в конкурсе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роводимого редакцией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2019 г., поделилась радостной вестью: несколько ее рассказов опубликованы в сборнике рассказов «Ризома. Рассказы не для всех».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среди авторов сборника есть именитые писатели России.

Вот что говорится в аннотации к изданию: «В сборник вошли рассказы современных российских писателей: Максима Чертанова, Дмитрия Быкова, Ивана Бездомного, Неточки Незвановой и др. Они совершенно не похожи друг на друга, и эта непохожесть – единственное, что объединяет их.»

В книге опубликованы три рассказа Виктории Цой: «Дорога к бабушке», «Пельмени по-корейски» и «Математика». Мы очень рады за Викторию, а также рады тому, что путь в литературу начался с нашей газеты. Ее рассказ «Дорога к бабушке» завоевал 2-ое место в нашем конкурсе. От души поздравляем Викторию Цой с выходом первой книги.

Виктория долгое время работает специалистом по таможенному оформлению. Литература всегда влекла ее. В нашей газете уже было опубликовано несколько рассказов Виктории.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очередной рассказ.



Мальчики

Цой Виктория

Старший сын в корейской семье – опора родителей. Он – единственный наследник, с ним старики проведут безбедную старость. Она слышала старинную историю о том, как почтительный сын в голодный год отрезал кусок своего тела и сварил суп, чтобы накормить ослабевшего от болезни отца. Эта история ей никогда не нравилась, как и та, в которой маленький мальчик не отгонял от себя комаров, говоря, что пусть лучше они жалят его, чем беспокоят родителей. Она окинула холодным взглядом соседскую девочку, певуче рассказывавшую старинные сказки, перевернула полными округлыми плечами и подумала, что время глупых обычаев давно прошло.

Но быть старшей невесткой ей нравилось. Она безраздельно царила на кухне, отдавая нудную и грязную работу младшим невесткам и сестрам мужа. Те закусывали губы, но молчали, чтобы не сеять раздор в семье, а она ловко распорядилась снедью, откладывая кусочки повкуснее подальше, чтоб потом, захлопнув дверь за надоедливы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достать из подпола кусочек отварной свинины пожирнее, нарезать мягкого осьминога или просто насыпать шоколадных конфет в вазочку, поставить еду перед сыновьями и любоваться, как они дерутся, вырывая еду друг у друга.

Свекровь ворчала, но недолго, и вправду сказать – что плохого в материнской любви? Да и сама бабушка любила старшего внука без памяти, такого потешного, с блестящими круглыми глазами, совсем как у деда.

Летом ремонтировали дом. Теперь по выходным у них было людно. Братья мужа сновали по двору, неумоимо тащили груды досок, колотили, стучали молотками, забирались на крышу, лезли на сарай и топтались по огороду. Сестры мужа толклись на кухне, варили, парили, жарили, беспрестанно грохоча крышками начищенных кастрюль и смеясь, пересказывали нехитрые сплетни. В полдень дружно сядились обедать. Сначала за стол усаживались мужчины, и тогда дед непременно сажал ее сына, старшего внука, на колени и он, зачерпывая горячий суп маленькой ложкой, быстро уминал целую тарелку и, сыто блестя пухлыми губами, сползал с колен и убежал во двор. Остальные внуки терпеливо ждали, когда поедят взрослые и матери кликнув их к столу, чтобы усадив, поставить перед ними оставшуюся нарезанную на маленькие кусочки горячую кровяную колбасу и суп, заботливо остуженный в чаше с холодной водой.

Она с трудом дождалась окончания ремонта, еле выносив бесчисленную родню мужа. Наконец последний гвоздь в крыше дома был вбит, и младший брат мужа по-

бедно сказал:

– Ну, теперь простоит до самой моей старости!

– А причем тут твоя старость? – спросила она. – Это не твой дом. – Он стоял с открытым ртом, а она позвала мальчиков пить чай с вареньем из крыжовника, золотистым, с плавающими полосатыми ягодками, каждая из которых сперва была наколото вилкой, а потом долго томилась в сладком сиропе с вишневыми листьями. Свекр очень любил это варенье, и сестра мужа, та самая соседская девочка, варила его бесподобно.

Когда дед умер от беспощадной болезни, она по настоянию свекрови с неохотой взяла мальчиков на кладбище. Там ее сыновей вытолкнули вперед чьи-то руки, и народ зашептался: «Смотрите, как похожи на старого Хе Сона». Они стояли с траурными белыми повязками, старшая не плакала, стильный ветер ерошил густые черные волосы, холодный снег таял на щеках. Бахал литаврами маленький оркестр, заунывно вразнобой пели гнусавые трубы, у мальчиков кривились губы и в конце концов младший заревел, вытирая глаза рукавом синей школьной формы. Бабушка подняла голову, оглядела внуков и внучек, стоявших у края чернеющей могилы, и на мгновение слабая улыбка промелькнула на ее лице.

После смерти деда бабушка прожила еще десять лет и за эти годы изрядно ей надоела, и когда заговорили о переселении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она начала уговаривать мать мужа уехать. В дом престарелых.

– Бабка не хочет в Корею, – с досадой говорила она сыновьям за ужином. – Чего упирается – непонятно! В тепле, чистоте, сытости – поживет в хороших условиях напоследок. Жить – то недолго осталось.

Старший сын ел молча, не поднимая глаз, младший тянулся за последним кусочком ветчины и, набив рот, согласно кивал:

– Пусть едет, мам! Уговори бабуку, а я займу ее комнату.

Она несколько раз начинала разговор с мужем, но тот, обычно мягкий и рассеянный, каменел лицом и резко прерывал разговор: «Мать будет жить с нами до конца».

Бабка мешалась постоянно, а с возрастом добавилась забывчивость и ужасная привычка повторять одно и то же. Не раз она, не доев ужин, с белым от ярости лицом, уходила на кухню и принималась грохотать кастрюлями, с размаху швыряя посуду в раковину. Мальчики поспешно убегали из-за стола, и только муж, глядя в тарелку, слушал бесконечные жалобы бабки на ноющие кости и холод в ногах. Совсем из ума выжила.

(Продолжение на 5-ой странице)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8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Мун Чжэ Ин: РК готова сесть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с Японией в любое врем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готово сесть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с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Японии в любое время и начать диалог.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 телевизионном обращении к народу страны по случаю 102-й годовщины Первомартовского движения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Он отметил, что соседние страны могут «мудро» решить нерешённые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общей историей, если они будут учитывать интересы друг друг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тмети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еодолеть препятствие в виде неспособности разделить истор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с усилиями по установлению связей,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а будущее. Дву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оможет стабилизации и сосуществованию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принесёт пользу трёхстороннему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ежду РК, США и Японией, - сказал Мун Чжэ Ин. Он обещал продолжить усилия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установлению прочного мира в регионе, напомнив о трёх принципах постро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недопущение войны, гарантии взаим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овместное процветание. Президент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начнё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с участия в «Инициатив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направленной на содействие партнёрству в борьбе с кризисами в об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К будет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ради успеха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Токио, поскольку это может дать шанс для диалога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ями, США и Японией.

РК на восьмом месте по качеству жизни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COVID-19

РК заняла в феврале восьмое место среди 53-х крупнейших стран мира по качеству жизни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COVID-19.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1 марта агентство Bloomberg. В период с ноября прошлого по январь текущего года страна опустилась с 4-го на 12-е место, а сейчас начала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 позиции. Рейтинг американског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агентства основан на анализе десяти показателей, таких как рост заболеваемости, уровень смертности, возможности тестирования и ухода, доступность вакцин, влияние пандемии на экономику и свободу передвижения. Улучшение показателя связано с замедление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и появлением вакцин против COVID. На первом месте Новая Зеландия, далее следуют Австралия, Сингапур и Финляндия.

Фильм «Минари» получил премию «Золотой глобус»

Фильм «Минари» американ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Ли Исаака Чона стал лауреатом премии «Золотой глобус» этого года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фильм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Об этом объявлено на церемонии вручения премии, прошедшей 28 февраля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Его сюжет основан на истории жизни самого режиссёра, родители которого в 80-х годах прошлого века переехали в штат Арканзас и начали заниматься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Фильм обошёл других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премию в данной номинации - «Ещё по одной» Томаса Винтенберга из Дании, «Ла Йорона» Хайро Бустаманте из Гватемалы, «Вся жизнь впереди» Эдвардо Понти из Италии и «Мы» Джордана Пила из США. Премия «Золотой глобус» была учреждена в октябре 1943 года, а первая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состоялась в январе 1944 года. Лауреатов премии определяют 93 члена Ассоциации иностран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аккредитованных при Голливуд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лауреатом «Золотого глобуса»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фильм на иностранном языке» стал филь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режиссёра Пон Чжун Хо «Паразиты».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одобрило законопроект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ового аэропорта в Пусане

Законопроект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ового аэропорта во втором по величине южнокорейском городе Пусане получил 26 февраля одобр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Аэропорт будет построен на острове Кадокто с целью удовлетворения спроса на воздушные перевозки и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ю юго-востока страны. Законопроект поддержал 181 депутат, 33 голоса подано против, 15 воздержались. Споры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а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ного объекта продолжались более 10 лет.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ппозиция критиковала правящую Демократическую партию Тобуро за её стремление утвердить проект в преддверии апрельских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выборов, в ходе которых должны быть избраны мэры Пусана и Сеула. 25 февраля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в сопровождени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правящей партии и ряда министров совершил поездку на место будуще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Оппозиция осудила данную поездку, назвав её «вмешательством в выборы».

(RKI)

Мальчики

Цой Виктория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ой странице)

Однажды бабка днем забыла выключить плиту и выкипевший суп наполнил гарью и копотью просторную кухню. Вечером, отдраивая железной мочалкой плиту, она принялась обдуманно жаловаться сестре мужа:

– Боюсь мать одну дома оставлять. Еще пожар устроит. А тут дети, твои родные племянники, между прочим. Страшно-то как!

Золовка слушала с каменным лицом. Задетая ее молчанием, она перешла на крик:

– Сгорим все! Этого хотите? Матери надо в Корею ехать. Там уход, медицина, а мы тут уж как-нибудь без нее проживем.

Сестра мужа упорно смотрела на печку. На кухню вбежал старший сын, обрадовано обнял любимую тетку и повернулся к матери:

– Мам, давай чай пить? С крыжовенным вареньем? Она вытерла руки о фартук, тяжелой походкой прошла к раковине, налила воды в чайник до самого края. Достала кружки, варенье, сахар.

– Зови отца и брата. Золовка заулыбалась: – И бабушку. Я булочки с фасолью принесла, ее любимые.

Старший махнул рукой: – Да ну ее. Опять начнет ныть про болячки.

Золовка потемнела лицом. Резко развернулась к плите, схватила мочалку и принялась яростно тереть нагоревшую копоть. Пару раз вытерла глаза, видать попала сажа.

Через полгода бабку провожали в Корею. Она на радостях отдала дорогой шерстяной шарф в красно-коричневую клетку, туго повязала его на морщинистой шее.

Больше она бабку не видела. Кажется та прожила еще лет пять в доме престарелых и под конец, уже лежащая, не узнавала никого. Сама она к ней не ездила. То времени не было, то билеты дорогие, то кимчу надо солить.

После отъезда матери муж совсем съезжился, мало говорил, мало ел и совсем ей не перечил. Когда она убрала фотографии деда с бабкой, он вроде ничего и не заметил. А ей всегда было не по себе от этих фо-

тографий. К чему покойников по стенкам развешивать? Жить нужно самим. Когда муж умер, она недолго плакала. Все там будем.

Она стала медленнее ходить, стала многое забывать и иногда жена сына с досадой говорила ей:

– Да что ж вы, мама, ничего не помните-то! Свет в туалете выключайте после себя!

Она сначала сердилась, потом махнула рукой, пропуская мимо ушей ворчание молодой невестки.

Однажды старший сын пришел с работы раньше обычного, наскоро поужинал и, переглянувшись с женой, вдруг начал говорить о том, что жизнь нужно заканчивать там, где есть надлежащий уход, и что медицина в Корею шагнула далеко вперед и он уже узнал, места в доме престарелых есть. Она долго не могла взять в толк, к чему он ведет, а когда поняла, зашаталась, схватилась за спинку стула, медленно сползая. Невестка ловко подставила руку, усадила, налила крепкого чаю и зачастила:

– Мам, да вы не волнуйтесь, мы будем часто приезжать. Вам там будет лучше. Поезжайте, всего на пару месяцев. Не понравится – вернетесь.

Она мертвенно кивнула. Сын отвернулся, защелкал пультом телевизора.

Через две недели ее отправили. Невестка заботливо накинула на плечи теплый платок, сын долго махал рукой на прощанье.

Вот она сидит в инвалидной коляске в чистом, светлом, прекрасном доме престарелых, построенном в центре Инчхона. Полные плечи ссохлись, остро торчат ключицы, щеки ввалились, коричневая кожа на скулах натянута, как у мумии. Она не разговаривает ни с соседками по палате, ни с врачами. С утра она выезжает во двор, с силой толкая колеса коляски. Ставит на тормоз и готовится ждать. Входные ворота беспрестанно ездят туда-сюда, впуская и выпуская блестящие машины. Изредка похожие на мертвецов старики выходят на улицу, бредут по аллеям, рассаживаются на лавочках погреться на теплом солнышке. Она сидит, вцепившись морщинистыми руками в поручни, ждет. Скоро мальчики приедут за ней. Ведь она все для них сделала, все.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 tsoi.oksun@gmail.com

Издание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ловаря может стать шагом к объединению страны

Министр по воссоединению Южной Кореи Ли Ин Ён призвал к возобновлению проекта по составлению совместно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словар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сказав, что это станет «твердым шагом» к объединению.

Ли сделал это высказывание на виртуальном форуме по межкорейскому проекту, призвав к скорейшему изданию словаря, работа над которым была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в 2005 году, как часть усилий по преодолению языкового барьера между двумя Кореями.

Мы надеемся на скорейшее открытие 26-й межкорейской встречи по словарю и завершение проекта, который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выполнен на 81 процент,

сказал Ли.

Ли назвал проект «небольшим, но твердым шагом» к достижению воссоединения и пообещал содействие в различных других межкорейских проектах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истории и спорта.

С начала работы над словарем две стороны провели 25 раундов встреч с учеными, но программа была приостановлена в 2010 году после атак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торпеды на южнокорейское судно Cheonan. После возобновления работы в 2014 году проект вновь был приостановлен в конце 2015 года в связи с обострением межкорейской напряженности.

ИА РУСКОР

Самый популярный в мире пианист родом из Южной Коре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музыкант Чо Сон Чжин назван самым популярным в мире пианистом, согласно опросу базирующегося в Лондоне музыкального сайта.

Музыкальный портал uDiscoverMusic.com сообщил, что Чо занял четвертое место среди 25 ведущих классиче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мира в первом в своем роде опросе по выявлению фаворитов в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е. Среди пианистов он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Опрос был проведен среди 11 000 человек во всем мире с ноября по январь.

Чо, который получил всемирн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после победы на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онкурсе имени Фредерика Шопена в 2015 году,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активно проводит сольные концерты и выступает с прославленными оркестрами, одновременно записывая музыкальные альбомы.

Ряд других азиатских 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лассиче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также попали в список. Китайский виолончелист Ё Ё Ма занял 11-е место, а его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ианисты Юджа Ван и Лан Лан находятся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на 15-м и 19-м местах.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ианист и композитор Ю Ри Ма занял 25-е место.

ИА РУСКОР

Два южнокорейца умерли после прививки вакциной AstraZeneca

3 марта два южнокорейца умерли вскоре после того, как им были сделаны прививки против COVID-19 вакциной AstraZeneca. Один из них - 63-летний пациент, который страдал цереброваскулярн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Он находился на стационарном лечении в больнице города Пхэнтхэка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где 27 февраля получил прививку. 28 февраля у него поднялась температура, начались боли по всему телу. 2 марта пациент был переведён в больницу более высокого уровня, а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он умер от сепсиса и пневмонии. Второй умерший, у которого были множественные хронические заболевания,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проблемы с сердцем, диабет и перенесённый ранее инсульт, находился в больнице сестринского ухода в городе Коя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ациент был вакцинирован 2 марта утром в больнице. К полудню того же дня у него начали проявляться симптомы сердечной недостаточности и затруднённое дыхание, но после оказания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ему стало лучше. Те же симптомы возобновились утром 3 марта, и пациент умер. Медики стараются выяснить, связана ли смерть двух человек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с действием вакцины.

KBS World

Сахалин даст старт Всероссийской «Вахте Памяти»

Масштаб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начнется в апреле. На острове соберутся более 25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из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Подготовку обсудили во время рабочего совещания,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Читая память предков-освободителей – наша святая обязанность. Важную роль здесь играют поисковые работы. Находясь в местах боев, молодежь проникается историей и передает это своим сверстникам, а затем и своим детям,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 апреля по октябрь в регионе запланированы выезды островных активистов-общественников по проекту «Вечный полёт». Они нацелены на поиски останков советских летчиков и обломков разбившихся самолетов. А в конце мая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стартует полевая экспедиц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ронт» с участием поисковиков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руги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В ее составе будет работать студенческий отряд, который создадут на базе СахГУ. Ребята научат поисковую работу и анализу архивных данных. В середине июля поисковики отправятся на остров Шумшу, где шли финальные сраже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 За время наших экспедиций на Шумшу с 2014 года обнаружены останки 115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Но работы еще много. Сотни солдат не найдены и не преданы земле. Кроме того, весь сезон планируем вести поиски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там же в августе проведем реконструкцию боёв. А в сентябре – торжественную церемонию захоронения,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Артем Бандура.

Также в регионе запустили проект «От 1905 до 1945», посвященный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е.

– Мы провели опрос и выяснили, что мало людей знает о каких-либо фактах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Особенно среди молодежи. Многие и вовсе путают её с событиями 1945 года. А про массовые расстрелы японскими солдатами мирных русских жителе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нынешнего села Дальнее вообще мало кто слышал. Хотим восполнить этот пробел, – поделилась Елена Красильникова, лидер команды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о» молодеж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ланах инициаторов проекта провести фотовыставки, посвященные лейтенанту Максимову, капитану Быкову и партизанским отрядам. В перспективе – исследовать предполагаемое захоронение казенных мирных жителей в Дальнем и установить памятник. В краеведческую, поисковую 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мерены активно вовлечь молодежь,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память о жертвах и героях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Холмские хоккеисты получили новейшее оборудование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Спорт – норма жизни» для «Холмск-Арены» приобрели около 70 единиц инвентаря – от самоходной ледозаливочной машины до тренажеров, не имеющих аналогов в регионе. На закупку выделили более 34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Это беспрецедентная сумма для нашего учреждения. Данная субсидия поступила к нам достаточно неожиданно – в России действует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спорта, в которой есть одно из требований – приведение в нормативное состояние учреждений спорта. В нашем случае это было развитие по виду спорта «Хоккей с шайбой»,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МБУ «Холмск-Арена» Герман Жорников.

Одна из самых крупных покупок спортучреждения – новая самоходная ледозаливочная машина, у которой захват льда больше на 20 сантиметров.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обновление ледового покрытия происходит быстрее. Отдельная гордость комплекса – четыре интерактивных тренажера – таких нет даже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Каждый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отработки техники хоккеистов: точных пасагов, тотального контроля шайбы, скорости реакции, а также точности и скорости броска.

– У меня реакция стала гораздо лучше и пасы точнее, – поделился воспитанник комплекса, игрок хоккейной команды «Морские львы 2007-2008» Александр Пя. – Раньше у нас было гораздо меньше оборудования и тренировок не были настолько разнообразными. Сейчас азарта больше и занятия ярче проходят. С новой техникой разобрались быстро и легко, тут всё просто и понятно.

Отдельно были приобретены 40 тренажеров на все группы мышц. Среди них – беговые дорожки, тренажеры для сгибания и разгибания ног, жима ногами, тренировки бицепсов, мышц предплечья.

– Чаще всего я пользуюсь тренажерами для ног. Теперь, когда бегаю на льду с соперниками, лучше обхожу их, быстрее перемещаюсь, – рассказал юный хоккеист Леонид Сутягин.

Помимо тренажеров спорткомплекс приобрёл электронный станок для заточки коньков, хоккейные ворота, машину для подрезки льда у бортов, мишени для отработки ударов по воротам, тренажер для отработки падений, прыжков, скольжений и ударов, установки для сушки коньков и универсальное информационное табло.

Напомним, спорткомплекс «Холмск-Арена» открылся в 2015 году. В учреждении сейчас занимаются 106 ю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 71 хоккеист и 35 фигуристов. Набор ре-

бят продолжается. Воспитанниками могут стать жители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в возрасте от 5 до 18 лет.

– Развитие спорта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о. Подготовлена проектн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физкультурно-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Она уже получила положительное заключ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экспертизы и сейчас завершается процесс согласовани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ФОКа,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тём Подшивалов.

Новый объект позволит развивать существующие и новые виды спорта и привлечь к занятиям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ой и спортом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сахалинцев.

На защиту сахалинских рубежей встал зенитный ракетный комплекс С-400 «Триумф»

Для управления зенитной ракетной системой (ЗРС) на боевое дежурство заступил специальный полк. В честь этого события на острове состоялся торжественный митинг. От лиц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поздра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Дмитрий Федечкин.

– Когда рубежи нашей Родины защищены таким современным и эффективным вооружением, будущее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ших детей и внуков обретает четкий контур и светлый образ. Мы работаем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чувствовали защиту и заботу. Вопрос безопасности – безусловный приоритет. С началом боевого дежурства систем С-400 на Сахалине наш регион и восточные границы России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под самой надежной защитой. Всем мирного неба над головой, – отметил Дмитрий Федечкин.

Также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поздравил командующий армией ВВС и ПВО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 Владимир Кравченко.

– От членов военного совета и от себя лично поздравляю вас с завершением этапа перевооружения зенитного ракетного полка на новую систему С-400. Ваша задача –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вой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быть высоко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и офицерами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 отметил Владимир Кравченко.

После митинга личный состав расчетов ЗРС С-400 «Триумф» отправился на свои посты. Готовность бойцов проверили в ходе внеплановой тренировки.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минут выполнили нормативы по разворачиванию боевых расчетов из походного в боевое положение, зарядили пусковые установки управляемыми зенитными ракетами и произвели захват средств условного воздушного нападения. Благодаря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у и слаженности боевых расчетов ЗРС С-400 все воздушные цели были уничтожены электронными пусками ракет при входе в границу зоны поражения.

Командующий армией ВВС и ПВО Владимир Кравченко дал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действиям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В инфекционной отделении Корсаковской ЦРБ прошла комплексная проверк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едомства провели в инфекционном отделении медучреждения проверку в составе комиссии, куда также вошли сотрудники Росздравнадзора,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Корсаковской городской прокуратуры.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здраве, при том, что отделение рассчитано на 27 коек,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лечение там проходят 14 человек, нагрузка минимальна. Комиссия проверила качество и условия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ациентам.

Здание 1987 года постройки изначально возводилось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при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ях, с возможностью разделения потоков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го лечения при выявлении особо опасной инфекции. Последняя техническая экспертиза признала здание ограничено работоспособным.

Его состояние поддерживалось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периода эксплуатации,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их лет выполнялись работы по внутренней отделке, замене дверных блоков. Санитарная обработка и дезинфекция проводятся ежедневн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санитарными нормами.

В ходе контрольной проверки было выявлено, что условия, в которых проходят лечение пациенты, не соответствуют требованиям санитарно-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Все указанные замечания учтены, будут приняты меры к их устранению. В частности, до 1 апреля будет подготовлена проектно-сметная документаци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ремонта, сами работы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к концу июля текущего год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Адмирал Невельской» отправился в путь на Сахалин

Новейшее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ое судно – первое из двух, построенных под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ом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в пятницу, 26 февраля, вышло в море. «Адмирал Невельской» идет к сахалинским берегам по югу – через Суэцкий канал.

– Планируем встречать судно в апреле. А уже в мае оно начнет курсировать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Курилами. Для жителей островов – это долгожданное событие. Курильчане смогут с комфортом путешествовать по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Впереди сезон летних отпусков, поэтому надежное сообщение не только по воздуху, но и по морю

приобретает особую актуальность,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Адмирал Невельской» будет ходить по маршруту: Корсаков – Кунашир – Шикотан – Итуруп – Корсаков. Планируется периодичность два раза в неделю. Сегодня на линии работает только одно судно – «Игорь Фархутдинов» 1990-х годов постройки.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удна «Адмирал Невельской» и второго – «Павел Леонов» – велось на Невском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судоремонтном заводе под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ом с 2018 года. Заверши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торого транспортного средства планируется в апреле. После ходовых испытаний «Павел Леонов» тоже отправится на Сахалин.

Новые суда имеют повышенный ледовый класс и приспособлены к длительной автономной работе. Каждый из них сможет перевозить до 146 пассажиров, а также груз и автомобил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одно-, двух- и четырехместные каюты для семей с детьми. Также есть каюты, предназначенные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С выходом обоих судов на курильский маршрут появятся возможности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ть провозную способность. Будут перспективы также для роста грузооборота, что немаловажно дл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Курильских районов.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шают в кадровый резерв

Программа по обновлению резерва управленческих кадр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йствует с 2009 года. Ее цель – формирование базы высоко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управленцев, которые планируют работать в орган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а также в организациях приоритетных сфер экономик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Участниками программы могут стать сахалинцы и курильчане в возрасте от 25 до 50 лет. Среди обязательных требований – граждан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лад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языком, отсутствие судимости, а также наличие высш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бщий трудовой стаж не менее 5 лет, стаж работы на управленческих или руководящих должностях не менее 1 года.

Желающи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ограмме могут направить документы в министер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борочные процедуры продлятся до 2 апреля 2021 года.

Резерв формируется по трем целевым группам:

- на руководящие и управленческие должности в органах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а руководящие и управленческие должности органов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подведомственных мест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учреждений;
- на должности руководител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 бюджет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отраслям.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стоящем отборе с указанием требований к претендентам, перечня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документов, места и времени приема документов можно найти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разделе «Власть/Госслужба/Резерв управленческих кадров/Новости», а также в газете «Губернские ведомости» от 17 февраля 2021 года № 16.

Свыше 25 тысяч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шли вакцинацию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Обе прививки сделали 14,5 тысяч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Еще столько же островитян записались на вакцинацию. Список желающих ежедневно пополняется десятками имен.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 регионе обеспечена бесперебойная поставка препарата для иммунизации жителей.

З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о ни одного случая осложнений после прививки. При этом эффективность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акцины «Спутник V», по данным разработчиков, превышает 90 процентов.

Бригады по вакцинации сформированы во всех островных поликлиниках.

– Каждого пациент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опрашиваем. Важно выявить, не болен ли человек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нет ли противопоказаний, – рассказала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главного врача поликлиники №2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талья Романова.

Для удобства жителей пункты вакцинации работают не только в медучреждениях, но и в торговых центрах. Медицинские бригады выезжают на предприятия.

Некоторые организации на прививку записываются целыми коллективами. Одно из та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 управление автомобильных дорог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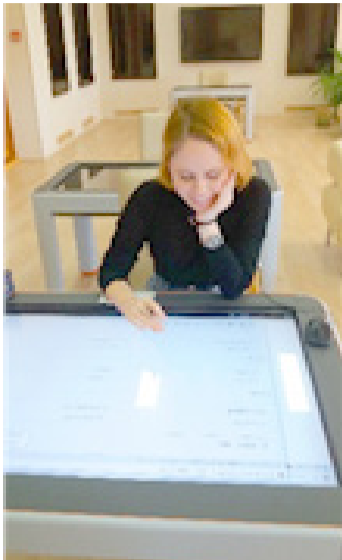
– Я каждый год прививаюсь от гриппа.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тоже не было сомнений. Планирую отпуск, хочу внуков повидать, поэтому вакцина нужна обязательно. Я и мои коллеги – за прививки, – поделилась сотрудница учреждения Галина Врублевская.

Сахалинка воспользовалась одним из трех способов записи на прививку – лично обратилась в поликлинику. Также любой желающий может записаться по телефону 1-300 или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K-POP 한국의 온화한 기지 요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르쇼바 아나스타시야라고 합니다. 태평양 국립대학교 4학년생이고, 전공은 해외지역연구, 아시아 연구입니다. 발표제목은 "K-POP 한국의 온화한 기지 요소" 입니다.



소프트파워는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외교와 대외적인 문화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팝 오락 문화산업은 좋은 소프트파워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케이팝이 90년대에 생겼을 때에는 세계에서 유명하지 않았지만, 2010년도에 한국은 팝문화의 거대한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이 케이팝을 소프트파워로 활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는 데 성공했다고 보여줍니다. 그중에서 방탄소년단은 (BTS) 케이팝을 세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2018년, 방탄소년단은 5등급 화관 문화훈장을 받았으며, 이 그룹의 성공은 북미 내 케이팝 성장에 촉진제가 되었다고 2018년 한류백서에 기록되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다른 그룹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서양음악 대신 전통 한국문화를 음악 편곡에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자신의 곡 '아이돌' 뮤직비디오에서 현대화된 한복을 활용했으며, 심지어 많은 문화적 참고문헌을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는

힘의 상징, 달토끼는 불멸의 상징 같은 것입니다. 게다가 풍물, 팽가리, 각궁, 장고, 판소리와 같은 여러 한국전통무용과 약기도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의상을 입은 무용수와 함께, 대금과 같은 한국 전통악기를 사용하면서 사자춤을 추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이홉은 전통춤인 삼고무를 추었고, 지민은 부채를 사용한 전통춤인 부채춤을 추었습니다. 한편, 2020년 2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기업 브리핑에서 방시혁 대표는, 팬들이 언어의 벽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케이팝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한국 내 외국인 학생들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를 통해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정보에 의하면, 방탄소년단 덕분에 전세계 한류 팬들이 22%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8년까지 기록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으로 인해 약 79만 6000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연예인이 경제, 산업, 민족문화에 이런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드뭅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들을 보면, 방탄소년단이 한국의 자랑이고 자산이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ТИХООКЕА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Институт социально-полит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и коммуникаций
Специальность «Зарубежное регионоведение. Азиат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IV курс
Борщёва Анастасия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도' 토론회 '재외동포청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난 2월25일 오전 국회 영상회의실에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 개발과 관련 실무 총괄할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재외동포청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도'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설훈, 노영래, 김민석, 어기구, 박정 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세계한민민주회의, 재외동포연구원, 재외동포신문이 함께 주최했다.

좌장은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발행인이 맡고, 토론회 순서로는 발제에 임채완(재외동포연구원장 겸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 토론에 노영돈 교수(인천대), 박종범 전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김용기(한림대 일본학 연구소 HK교수), 다음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국회 현장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청객들은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참여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동포청을 만들 때가 됐다."며, "관계국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집권정당으로서 재외동포청 설립에 동포들의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발행인은 "글로벌 시대에 지구촌 곳곳에 750만 명의 재외동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중 215만 명이 유권자이다. 재외동포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청을 설립함으로써 재외동포 인구 규모와 전략적 중요성에 걸맞는 합리적인 정책 대응을 할 때가 되었다."고 피력했다.

임채완 원장은 인구 및 네트워크의 증가, 업무 담당부처 확대, 법제화 지체 등 세 가지로 재외동포 추진 환경변화를 강조했다.

1990년 말 제정된 '재외동포 재단법'(1997)과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재외동포정책 추진의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못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구현에 미비점을 안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가져올 효과로는 총괄적, 체계적 재외동포 지원정책 마련, 예산 편성의 합리화, 독자적 정책 수립 및 집행 조정, 공공외교 강화, 정체성 유지와 권익향상 효과, 국내외 업무 협력 강화 등을 들었다. 임 원장은 한국에 재외동포 100만 명이 살고 있다며 외국인인지 동포인지 명확한 규정이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점으로 현재 재외동포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으므로 정책과 예산의 중복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영돈 인천대 교수는 재외동포 전담기구의 위상은 '청'이 아니라 '처'의 위상이 맞다며 전담기구는 각 부보다 위상이 높아야 하기에 처가 적합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유는 '처'의 위상으

로 재외동포 전담기구가 설립될 경우 특정 부에 소속되지 않고 총리 산하에 있기 때문에 독립된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종범 전 유럽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은 재외동포들의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해외 동포들과 현지인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며 현재 외교부 산하에 있는 재외동포 재단을 확대 개편해 외교부 외청 위상의 동포청 대신 대통령 직속위원회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림대 김용기 교수는 현재 개별 국가를 상대로 외교하는 외교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디아스포라 동포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재외동포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는 화상으로 참여한 동포들의 의견을 듣는 종합토론으로 이어진 가운데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8인이 의견을 말했다. 백승국 대양주한인회 총연합회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은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님을 밝혔고, 박선유 재독한인총연합회 회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이 750만 재외동포를 묶어줄 중심점이 되길 바란다고, 온라인을 통한 교류로 물리적 거리는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을 거라고 지지했다.

그 외 윤영만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회장, 허인욱 동포처추진위원회 위싱턴위원장, 나은숙 민주평통 오렌지카운티 자문위원, 설규중 민주평통 청다오협의회장 등 재외동포청의 설립을 지지했다.

재외동포들의 발언 후에 심은교 외교부 재외동포과장, 최보영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 변인경 병무청 자원관리 행정사무원,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장, 류진우 통일부 국제협력과 사무관, 신성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 위원지원과장 등 재외동포청 설립에 관한 각 부처가 입장을 발표했다.

끝으로 재외동포 중 재외동포청 설립과 관련해 재외동포 기본법과 정부조직법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임채완 원장은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해서는 재외동포기본법과 정부조직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답하고 노영돈 교수의 의견에는 "첫 단계부터 이상적인 전담기구를 논하기보다 우선 재외동포청을 출범시켜 재외동포 관련 예산과 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소중하고, 이후 발전 과정에서 전담기구의 격상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회 영상회의실의 화상 토론 참여자는 180여 명이었고, 마지막으로 설훈 국회의원이 세계 각국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여해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재외동포신문 제공)

고령 쌍림면, 100세 어르신 장수지팡이 전달



고령군 쌍림면은 지난 2월 9일 관내 100세를 맞이한 하복수 어르신에게 장수지팡이를 전달했다. 하복수 어르신은 대창양로원에 입소 중인 사할린한인으로 1994년 영주 귀국한 이후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100세 어르신에게 드리는 장수지팡이는 청려장(靑藜杖)이라고 하며 명아주의 대로 만든 지팡이로 예로부터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희준 쌍림면장은 어르신에게 꽃다발을 전달하며 어르신의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출처: 경안일보)

문화재청, 우즈벡 역사문화박물관 보존처리실 개소 지원

문화재청,
유물 보존처리 장비와 설명서 지원
2월 9일 개소식

우리나라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역사문화박물관 내 보존처리실이 2월 9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문을 열었다.

이번에 문을 연 보존처리실은 사마르칸트 지역에 있는 8개 국·공립박물관이 보유한 23만여점의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를 전담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이곳에 지원한 각종 보존처리 기자재와 장비, 새로 개발한 보존처리 설명서를 바탕으로, 올해 전문가 현지 연수와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유산을 통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이 지원한 보존처리 기자재·장비는 정밀분사사공기, 초음파 세척기 등 12종이며 보존처리 설명서(매뉴얼)에는 세라믹·철기·청동·석재별 기록화, 세척, 강화처리 등 실무적 내용이 수록돼 있다.

같은 날 열린 개소식은 ▲카몰라 아키로바 우즈베키스탄 문화부 차관과 강제권 주우즈베크한국대사의 환영사와 진옥섭 한국문화재단 이사장의 영상축사 ▲그동안 문화재청이 추진한 사마르칸트 지역 박물관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사업(이하 ODA)의 경과와 실험실 소개 ▲장비시연 등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강제권 주우즈베키스탄대사, 사마르칸트 부주지사, 한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를 대신해 참석한 강제권 주우즈베키스탄대사는 "사마르칸트 지역은 양국 간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아프로시압 궁전벽화)을 보유한 지역으로 박물관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유적지인 사마르칸트 지역은 신북방 문화유산 ODA 사업 핵심지역으로, 이곳에 있는 아프로시압 박물관은 7세기 바르후만 왕의 즉위식에 참석한 고구려 사절단 모습이 그려진 궁전벽화가 소장돼 있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재외동포신문 제공)

.....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Голосование продлится до 15 марта. Победители конкурса получают призы от организаторов выставки — церемония награждения состоится 17 марта в московском «Крокус Экспо».

대조국전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경연에 сахалин 주민들의 참가 권유

Сахалин주 사회원이 '대조국전쟁 시절 나의 가족' 프레젠테이션 경연에 주민들의 참가를 권하고 있다. 이 경연은 1941년-1945년 대조국전쟁 승리 76주년을 앞두고 진행되는 가운데 조국 수호와 영웅들의 업적, 가족사에 대한 сахалин 주민들의 애국심과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3월1일부터 4월 15일까지 '경연' 참가 신청서와 참가자의 작품 제출은 우편번호693009,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 프 로스펙트 코무니스체스키39b번지 사무실401호로, 또는 o.p.sakhalin@mail.ru를 통해 접수.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презентаций, посвященных ВОВ

Общественная пала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глашает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конкурсе презентаций "Моя семья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в преддверии празднования 76-й годовщины Победы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1941-1945 годов в целях содействия воспитанию гражданственности и патриотизма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примере семейных историй и подвигов героев, защищавших Отечество.

С 1 марта по 15 апреля работы участников и заявки с пометкой "Конкурс" принимаются по адресу: 693009,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39б, оф. 401 или на адрес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ы: o.p.sakhalin@mail.ru.

По вопросам участия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по тел. 8 (4242) 42-42-31 (Олеся Николаевна, сообщает общественная палата).

сахалин 고령의 주민들을 컴퓨터 강습에 초대

Сахалин주 일반 과학 도서관이 지역 고령자들을 무료 강좌와 개별 상담에 초대한다.

강습의 일환으로 강사들은 고령의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개인용 컴퓨터 및 스마트폰의 필요한 옵션 이용법과 활용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컴퓨터 강습에서는 문서 작업, 파일과 폴더 만들기, 네트워크 공간에서 필요한 정보검색, 전자메일 계정 만들기, 주 국가사이트와 기타 사이트에 접속하기 등을 가르친다.

스마트폰 강습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사진과 동영상 만들기, 왓츠앱에서 활동하기, 인터넷상에서 정보검색, 스마트폰

의 앱을 사용하기 등, 자신의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익히도록 돕는다. 수강신청과 추가 정보는 сахалин 일반 과학도서관 3 층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전화 (+7(4242) 4525-45)로 문의할 수 있다.

Пожилых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курсы компьютер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На бесплатные курсы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приглашает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рамках занятий преподаватели в доступной форме расскажут пожилым студентам, как пользоваться необходимыми опциями 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персонального компьютера и смартфона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Курс компьютер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научит работать с документами, создавать папки и файлы, находить нужную информацию в сетев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оздавать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работать с сайта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др.

Курс мобиль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поможет научиться эффективно пользоваться своими смартфонами: создавать фото и видео, работать с приложением WhatsApp, осуществлять поиск информации в Интернете, использовать мобильные приложения.

Записаться на курсы и получ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информацию можно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центре президентской библиотеки (3-й этаж СахОУНБ) или по телефону +7 (4242) 4525-45,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и.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Реклама





КИНО



ТЕАТР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сах.ком



КОНЦЕРТЫ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p>					